

영광,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영광군은 지난 23일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우수기관 선정은 2021년 한해의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21개 기관시·도 5, 시군구 1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분야 및 다중이용 집객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점검 등 8개 기준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코로나

19 방역 점검 및 조치, 방역물품 지원 실적 등 1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와 방역관리에 모두가 함께 힘써 온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임산부 숲태고 힐링캠프 '호응'

담양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 임산부 숲태고 힐링캠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숲태고 힐링캠프는 임산부 및 배우자의 정서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 태아와의 애착관계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립장성숲체원에서 1박 2일간 진행했다.

캠프에서는 부모-태아 애착증진과 임부정서 안정 프로그램,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임산부 심신의 안정 및 신체 기능향상, 부부친밀감을 도모했다.

21일에는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생

강꽃차를 활용한 차 마시기와 임산부 오감자극 및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 테라피, 아기명패 만들기,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2일에는 임산부 걷기 체험, 부부요가, 편백모빌만들기, 가족스냅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반기에도 숲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출산 전 검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동신대 나주체력인증센터 어르신 건강증진·체력강화 협력 MOU

나주시는 지역 노년층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23일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과 동신대학교 산하 국민체력100 나주체력인증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복지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강화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관은 어르신의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는 복지관 소속 어르신 회원의 체력측정 출장 지원, 기초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

처방, 체력증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체력수준 우수자에 대한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발급, 대상 어르신의 동기 부여를 통한 지속·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협력을 계획했다.

나주시장 권한대행 정찬군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0세 시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 수요에 부합하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서철훈 기자

장성, 아열대작물 '레몬' 재배 중심지로 도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공모 선정... 29억 투입 재배 활성화 박차

장성군이 아열대작물 '레몬' 재배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29억 원 규모 전남도 '2022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고소득 시설원예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단일 품목으로 3헥타르(ha) 규모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곳을 지원한다.

2020년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한 장성군은 아열대작물 재배의 메카로 부상 중인 지역이다. 지난 2017년부터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을 시작해 근래 들어서는 60농가 16ha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용과

난방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장성군은 다른 아열대작물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레

몬을 아열대과수 단지화 작목으로 지정하고, 공모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국산 레몬은 수입산과 달리 방부제나 왁스 처리를 하지 않아 안전하다. 또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의 시장 수요가 높아 대단위 수출전문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

장성군은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레몬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아열대 전용 시설하우스, 보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레몬은 각종 음식에 두루 쓰일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도 좋다"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을 진행 중인 우리군에 참պ공합 작물"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장성군은 자체 도시 브랜드인 '엘로우시터'와 레몬을 접목시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여름 꽃내음 가득한 거리 만든다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읍·면, 주요 관광지 식재

화순군이 읍·면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색색의 여름꽃으로 채운다.

화순군은 5월 말부터 일일초, 메리골드, 임파센스 등 여름꽃 7종, 8만



주를 읍·면과 주요 관광지에 식재해 여름꽃 거리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작물 육묘장에서 두 달간 키워온 다채로운 여름꽃은 8월 초까지 화순 곳곳을 알록달록 물들일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거리를 물들인 여름꽃을 보며 주민들이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종의 꽃들을 식재해 활기 넘치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올해 3회에 걸쳐 16종의 초화류 54만 주를 화순 곳곳에 식재하며 화순을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품 꽃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한방(韓方)으로 비만탈출' 화순 참가자 추가 모집

화순군이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한방(韓方)으로 비만탈출교실'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방(韓方)으로 비만탈출 교실은 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비만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운동, 건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고, 참가자를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지난 4월 시작한 프로그램은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건강 위협요인을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4, 5334)에 문의하면 된다.

장흥 봉림리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지역 주요 공유지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나서

장흥군은 도로변 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장평면 봉림리에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복합산림경관숲은 장평농공단지 앞 휴게쉼터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기존의 삭막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시행했다.

팽나무, 소나무, 영산홍 등 3천2백여 주의 수목 및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하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정자를 보수해 농공단지 근로자 및 내방객들의 휴게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장흥군은 이번 복합산림경관숲을 포함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쾌적한 산림경관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 공간 확충 및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숲 조성 또한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확대로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려 무더위, 소음, 매연을 흡수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신 및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담양농·특산물 전문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담다

담양장터 OPEN

건강한 자연을 담은 담양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